



# 제주도, 음압특수구급차 6대 추가 도입...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기사입력 2020-10-27 16:26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음압특수구급차 6대를 추가로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압특수구급차 시연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에서 새로 도입된 음압특수구급차를 활용한 환자 이송을 시연하고 있다. 2020.10.27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로 도입된 음압특수구급차는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아 마련됐으며, 제주·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와 제주시·서귀포시보건소에 1대씩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음압특수구급차는 기존 제주대병원에 배치된 1대를 포함해 모두 7대가 됐다.

그동안 제주·서귀포·동부·서부소방서와 항만·외도·노형119센터는 전담 구급차 7대를 확보해 코로나 19 특별이송을 위한 전담구급대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전담구급차는 일반 구급차 내부를 비닐로 싸서 활용한 것으로, 환자 이송이 끝나면 매번 비

날 교체가 필요해 출동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음압특수구급차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소방대원과 보건직원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비날 교체에 따른 출동 공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음압특수구급차 6대는 장비 설치와 직원 교육을 마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에서 진행된 음압특수구급차 시연 현장을 방문해 소방대원을 격려했다.



제주에 도입된 음압특수구급차  
 (제주=연합뉴스)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음압특수구급차 6대를 추가로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새로 도입된 음압특수구급차 내부 모습. 2020.10.27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에 및 DB 금지] dragon.me@yna.co.kr

dragon.me@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 ▶[팩트체크]상속세를 둘러싼 논란 정리
-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974337>